

제공일자	2008. 5. 14.(수)	담당자	안철경 산업연구실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 철 성 선임(368-4414)	연락처	02-368-4442	총 6 매

제 목 : 200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계층별 노후생활 대책 격차 심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조사·분석한 『200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간(2008.5.15)하였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의 보험가입율(개인)은 93%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 등을 통한 노후생활 대책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연금(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생활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부동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보험회사가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여하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전국 만20세 이상 총 1200명(유효표본),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이다.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보험가입 실태조사>

□ 2008년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7%,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92.9%로 포화상태를 기록

-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93.4%에서 2008년 97.7%를 기록함으로써 가구당 가입률 수준이 이미 포화상태로 진입
 - － 생명보험은 2003년 기준으로 연평균 1.4%, 손해보험은 연평균 1.9%씩 증가하여 2008년에 생명보험은 90.8%, 손해보험은 86.3%에 도달

(단위 : %)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생명보험	84.6	86.0	87.2	90.8
손해보험	78.4	78.5	82.3	86.3
전 체	93.4	94.4	95.6	97.7

- 개인별 가입률은 가구당 가입률 보다 낮으나, 2008년에 전체적으로 92.9% (생명보험 83.7%, 손해보험 61.3%)로 성인 10명중 9.3명이 한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

□ 생명보험 개인가입률 조사 결과, 저소득층 및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연금보험을 통한 노후생활대비가 미흡한 수준

-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의 보험가입율이 각각 약 70%, 35% 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노후생활대비 성격이 강한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가입률은 약 22%에 불과
-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성보험(연금포함) 가입률은 고소득층의 3분의 1수준인 11.7%로 10명당 1.2명 정도만 저축성(연금포함) 보험을 가입

(단위 : %)

보험 종목별 계층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종신)	저축성보험 (연금 등)	변액보험
연령별	30대	68.2	45.8	22.4	11.9
	40대	74.9	38.9	28.0	8.4
	50대이상	75.8	28.0	22.6	2.5
소득별	저소득	64.8	31.0	11.7	3.4
	중소득	72.6	34.4	23.9	6.8
	고소득	71.2	41.1	33.5	10.6
가입률(%)		69.8	34.8	21.9	6.6

<노후생활 대비 연금상품 활용도 조사>

□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생활 대비 수단으로 연금(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하나 개인연금 가입률이 공적연금가입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15.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공적연금 포함)을 통한 노후 대비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구 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개인연금	비가입
가입률	75.1%	7.8%	31.8%	15.3%
	82.9%			

주 : 본 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가입률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과 차이가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 가입률은 연금상품간 가입률의 상대적 값만 의미가 있음.

□ 연금 상품별 가입 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공적연금제외)이 고소득층의 절반 수준으로, 저소득층은 노후생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미가입률) 역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2배 정도로 높은 수준
- 따라서 저소득층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연금(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

(N=1,200 / 단위 : %)

연금상품별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개인연금	비가입
계층별					
연령별	30대이하	74.6	8.5	30.7	16.6
	40대	75.0	8.3	36.9	12.2
	50대	75.3	7.7	30.8	16.4
	60대이상	75.8	4.8	25.0	16.1
소득별	저소득	71.1	4.4	21.6	22.1
	중소득	78.7	8.0	34.4	11.7
	고소득	73.3	12.7	42.4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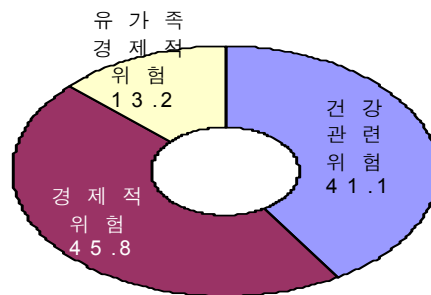
<노후생활 위험 및 자금마련 관련>

□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명은 연장된 반면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험(45.8%)과 의료비 및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관련 위험(41.1%)을 주로 꼽은 반면 본인 및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위험은 13.2%

노후생활 불안요소

(N=1,200, 단위:%)



□ 소득 수준에 따른 불안요소로는 고소득층인 경우 건강관련 위험을 저소득층인 경우는 경제적 위험을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N=1,200, 단위 : %)

계층별	사례수	건강관련 위험	경제적 위험	유가족 경제적 위험
저소득	(384)	37.0	50.8	12.2
중소득	(573)	40.3	47.8	11.9
고소득	(236)	50.0	32.6	17.4

□ 노후생활자금으로 부동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에 적합한 방법으로 부동산 수입(19.3%), 공적연금(17.2%), 연금보험(12.6%), 퇴직연금(12.2%), 예금상품(10.5%) 등의 순으로 조사

*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 예금상품, 연금보험, 퇴직연금 순(2004년 생명보험문화센터 조사)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방법

(N=1,200 / 단위 : %)

노후대비 생활자금	1순위	1+2순위	일본
부동산수입	19.3	34.8	4.1
공적연금	17.2	24.3	83.4
연금보험	12.6	22.8	36.5 ¹⁾
퇴직연금	12.2	21.4	33.9 ²⁾
예금상품	10.5	24.0	64.1
연금저축	8.1	17.7	3.8
저축성보험	6.4	18.8	18.6 ³⁾
연금펀드	5.1	9.6	
노후소득	4.8	12.8	19.3
일반펀드	2.0	6.7	5.3
주식/채권	1.3	3.9	
자녀지원	0.6	2.7	4.0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연금보험 포함

2) 퇴직금이 포함된 응답

3) 생명보험 대상

4) 일본 사례는 2004년 생명보험문화센터의 조사임(샘플수 4,202, 복수응답).

-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층인 경우는 퇴직연금, 연금펀드, 일반펀드, 주식/채권, 고연령층인 경우는 공적연금, 부동산수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적연금, 예금상품, 고소득층인 경우는 부동산수입, 공적연금, 연금보험, 퇴직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노후대비 생활자금	연령별				소득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공적연금	14.6	14.7	22.2	17.0	18.0	15.9	17.4
퇴직연금	13.4	11.5	11.6	12.2	10.9	12.6	13.6
연금보험	12.2	13.3	12.7	12.2	9.6	13.1	16.5
저축성보험	7.7	5.2	9.5	4.3	5.5	7.7	5.1
연금펀드	9.3	7.0	3.3	2.3	5.5	5.2	4.2
연금저축	6.9	10.8	7.6	7.1	7.8	8.6	7.6
예금상품	10.2	10.5	9.1	11.7	14.6	9.6	6.4
일반펀드	4.5	2.1	0.7	1.3	1.8	2.3	1.7
주식/채권	3.3	1.0	1.1	0.5	1.0	1.4	1.7
부동산수입	15.9	17.8	18.5	22.9	19.0	17.3	24.2
노후소득	2.0	5.6	3.6	6.9	4.9	6.3	1.3
자녀지원	0.0	0.3	0.0	1.5	1.3	0.2	0.4

<향후 보험상품별 가입의향 조사>

□ 향후 1년 이내 가입의향을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종목별로 조사한 결과 질병보장, 저축성보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현재 가입률이 70%로 매우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추가가입 의향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 당뇨, 여성건강, 장기간 병 등 질병의 발병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보장받고자 하는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
- 또한 고령화 진전,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저축성보험(연금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자본시장의 성장 및 호황과 선진국 보험시장의 영향으로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현재의 저조한 가입률을 고려할 때 향후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률 및 가입의향

(단위 : %)

구 분	질병보장 (건강보험)	사망보장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가 입 률	69.8	34.8	21.9	6.6
가입의향	24.3	13.8	19.2	7.5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의향 : 연령별

(단위 : %)

구 분	질병보장 (건강보험)	사망보장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대	34.1	21.5	22.4	9.8
30대	19.6	16.1	24.1	8.4
40대	20.7	11.6	21.8	9.8
50대이상	24.2	8.9	11.7	3.8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의향 : 소득별

(단위 : %)

구 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저소득	24.5	13.8	15.1	5.5	13.5
중소득	23.6	14.8	21.3	6.8	11.3
고소득	26.3	11.9	20.3	12.7	10.2

- 손해보험 상품별 향후 가입할 의향은 장기손해보험(3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보험(28.0%), 상해보험(4.9%)순